

98.4.23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(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)

「신학의 사조」 8: 실존주의(성서의 실존론적 해석)

<12 강좌> 계획 -- 어거스틴에서 포스트-모던까지

-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어거스틴  | 2. 토미즘       | 3. 종교개혁       |
| 4. 경건주의  | 5. 자유주의      | 6. 근본주의       |
| 7. 신정통주의 | 8. 실존주의(볼트만) | 9. 정치신학(울트만)  |
| 10. 해방신학 | 11. 환경/생명신학  | 12. 포스트-모던 신학 |

I. 지난 시간 요지,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응: 스위스 자펜빌의 목회자 Karl Barth(칼빈파)

1919년 『로마서 강해』 출판

1934년 독일 나치스(히틀러) 등극

“바르덴 선언”(하느님, 홀로 통치하신다, 다른 통치자도  
다른 계시자/메시아도 없다)

“NO!” 에밀 브루너(동료 신학자)에게

<사상 핵심>

1. “신의 질적 차이” 강조
2. “analogia entis” -- 신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! “이것 때문에 나는 결코 카톨릭이 될 수 없다!” 신앙/신학의 출발점=삼위하느님의 “자기-계시”(말씀)
3. 인간의 이성의 한계, “진보”라는 신화의 한계, “종교성”의 반역성을 보다.
4. 그리스도 중심주의, 교회중심주의!!!!

2. 루돌프 볼트만(Rudolf Bultmann, 1884-1976, 93살, 바르트보다 먼저, 나중)

1) 년보

1921, 『공판복음 전승사』, “양식사 비판”(form-criticism)을 확고히 하다.

\*/ 23-28: 말부르크에서 Martin Heidegger와 공존, “Dasein 분석”에 크게 영향받음

1927: 『존재와 시간』 출간 (‘시간’ 예기는 시간 없어서 별로 못하다!)

1926, 『예수』 -- “결단”을 촉구하는 설교자

1941, “신약성서와 신화론” 발표

그에게 영향을 준 이들:

철학자

신학자

2) 주요 사상/개념

<자료: Morris Ashcraft, *Makers of the Modern Theological Mind: Rudolf Bultmann* (1972)>

(1) 신학의 출발점 = 인간 “실존”(existence) -- “신”이 신학의 중심주제 -- YES

<실존> existence

<실존적> existential

예: 실존적 이해 = 나의 결단, 선택의 결과

<실존론적> existentialist

예: 실존론적 이해 = 다양한 가능성들과 그 한계성들을 연구한 결과

\*/<실존주의자들의 신화/믿음>

<실존적 이해>와 <대상적 이해>는 다르다. 후자는 과학적 이해. 초월적 위치에서만 가능. 그러나 전자는 “참여”/“만남”을 통하여서만 이해 가능.

\*/<질문자는 “질문한 만큼만” 이해한다. // <前이해> -- 질문의 중요성 !!!

(2) 인간 실존, 본래적 존재(양식)과 비본래적 존재

출발: 인간은 구조상 <Being-in-the-World> & Standing before the Future, ex-istence

\*/<“주체성”이 진리이다!

<본래성>

+ <비본래성>

facticity, possibility, fallenness

\*/<Human under the power of Sin -- 루터란적 인식

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“본래적 존재” 탄생

(3) 역사 -- historie, geschichte, eschatology, historicity

\*/<신약성서는 종말론의 문제를 풀지못하였다!? -- 재림지연--> “종교화”

그러나, 그리스도=역사의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 시도

역사성 -- 실존, 자기-이해

(4) “역사적 예수” 탐구

Martin Kähler, 『소위 역사적 예수와 (실존)사적, 성서적 그리스도』(1896)

슈바이처, 『역사적 예수 탐구』(1906), “옛 탐구”의 종언 수용.

<이유> 불가능+불필요, 부당한 노력

(5) 탈신화화(Demythologizing) =실존론적 해석

목표: 현대인들이 알아들도록 성서 메시지 선포하자(목회자들에게 발표한 논문)

<신약성서의 신화>, 그 성격

(6) 「speaking “of”(참여자) / “about”(초월자) God」의 구별 중요하다

십자가+부활=일상 속의 일

둘은 하나(롬10:9), 하느님과 우리의 참 실존으로 부르는 음성, “구원을 이루는 사건,” “신의 은총”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

(7) 죄=불신앙

(8) 신앙(삶의 방식, 실존 이해의 방식)의 구조

<성분>

<신앙=새로운 자기-이해>

<결단 행위>

<신앙=자유> from 자아, 세상, 율법, 죽음; for 하느님, 사랑

<신앙=종말론적 사건> 날마다 과거 죽음과 미래의 도래, (하느님의 은총으로)

남은 과제:

historie의 중요성, 예수 없이 그리스도? 그리스도의 신성?